

건강 칼럼

선의의 거짓말 기법

**우**리의 스피치 생활에서 모든 거짓말은 항상 나쁜 것일까? 모든 진실은 통하는 것일까? 아니다.

이제까지 굳게 믿었던 진실과 거짓에 대한 생각은 틀릴 수도 있다. 때로는 진실보다 거짓말이 잘 통할 수 있으며, 때때로 거짓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갈등을 없애기도 하며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준다.

그러면 진실은 영구적이고 거짓은 유통기한이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진실 또한 영구적이지 않다. 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진실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는 사람의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관계를 증진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거짓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진실보다 더 값진 진실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박 대리는 일 처리가 참 신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일을 맡기면 안심입니다. 당신을 전적으로 믿어요."  
"서 차장은 일 처리가 깔끔한 사람입니다."



김양욱 한국스피치&리더쉽센터 대표

"이 대리는 프리젠테이션 능력이 참 탁월한 사람입니다."  
"따님이 참 예쁘네요."  
"이러한 말들이 모두 진실일까? 물론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 보고 '당신은 참 예쁜 사람입니다.'라고 진심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진심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말속에 악한 마음이 없는 것이라면 거짓말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조금씩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다.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거짓말을 허용할 수 있다. 결과에 나쁜 영향

을 미칠 정도의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상대방이 모르게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거짓말이 발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거짓말기법을 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의의 거짓말이어야 한다. "아드님이 참 영특하게 생겼네요."

이런 말은 상대방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짓말이다. 이것은 관계지향적 대화의 일종이다. 관계지향적 대화는 사실지향적 대화와 달리 거짓이어도 상관 이 없다.

둘째, 나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악의 없는 거짓말이라도

결과가 나쁜 성과로 연결된다면 이는 지양해야 한다.

나쁜 거짓말은 곧 들뜬다는 거짓말이다.

셋째, 반복적이지는 안 된다. 직장생활에서도 한두 번의 거짓말은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한 거짓말이 되풀이되면 아무도 상대 해주지 않게 된다.

넷째, 진심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진심과 거짓은 완전히 다른 의미 이긴 하지만 거짓말도 진심이 바탕 이 되어야 한다.

진심 80%, 거짓 20%는 용인될 수 있어도 거짓 100%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집사람의 음식 솜씨는 그다 지 좋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항상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고 칭찬한다.

이렇게 하니 식탁이 즐거워지고 집안에 웃음꽃이 핀다.

이와 같이 선의의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 모두 스피치기법을 터득하여 대화의 센스를 활용하는 현명한 사람이 될 때 즐겁고 행복한 바이러 스가 넘치게 된다.

사설

전북도, 국가 예산 확보에 힘 쏟아야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 법예고와 관련하여 전북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궁금하다. 정부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의도는 분명하다. 광역 시도 지자체에게 재정 건정성 확보를 말 하면서 살림살이 방식에 간섭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전북도의 마음 고생이 심할 것 같다. 그런데 도민의 관심사는 전북도의 딱 한 입장 살펴주기 쪽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발전이 더딘 데 앞으로는 더욱 더디겠구나 하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북도가 힘을 쏟아야 할 대상은 예산 증액 쪽이다. 역대 정부들이 국가예산 배분과 관련해 공평하지 못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그게 한층 노골화 되었다는 게 중론이다. 소위 국책사업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있음에도 새만금이 그 얼마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실감이 나지 않는 작금이다. 백년 먹거리 사업이라는 탄소산 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전책 내용을 보면 거북이 걸음이라서 아무래도 백년하청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 해 분발해야 한다. 3년 연속 6조 원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는 곤란하다. 그것은 결코 만족스 러운 것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 도 아니다. 3년 연속 6조원의 내 용을 보면 씁쓸하다. 증가율 전국 최하위라는 성적표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카 드를 내밀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해선 안 된다. 그것 은 지역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패 배주의와 다르지 않다.

전북도에겐 줄 말이 있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현안사업들에 힘 을 쏟아야겠다. 본보는 예산에 기 회가 있을 때마다 주문한 것이 있 다. 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 말이다. 전북도 관계자들은 도민 이 기대한 만큼 부응했는지 자문 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핵심 사업들이 허탕없이 세월을 길게 끌고 있는데 비전인 있는 사 업들마저 정부로부터 장기간 홀 대를 당하고 있음은 유감이다. 전 북도와 도지사는 현안사업 추진 을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규모 있는 살림살이가 소망스럽다

전북도는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올해 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고 7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었다. 정부가 지방 재정부개정안이라는 카드를 내밀고 있는데 도내 증척을 맡은 이들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터 이다. 올해도 성장 전망치를 지꾸 낮추면서 국가 경제가 죽을 췌고 있는데 지역살림 역시나 미덥지 않다. 전북의 경제 발전 현황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인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전 북도는 작심을 하고 그 무언가를 보여주어야겠다.

전북도는 이같은 지적을 냉소적 으로 들을 게 아니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절치부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일자리 창출도 제 대로 안 되고 고용안정도 여전히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으니 답답 한 세월이다. 전국에서 말바다 수 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 말이다. 도리없다며 그 무언가 를 보여주라는 주문을 일부러 망 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현주소를 직시해야 한다. 전북도는 그 직

시하는 마음 바탕 위에서 전반적 으로 살림살이의 내실을 가해야 한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 해 보다 고심해야 한다. 적은 예 산에 속임수가 될 것을 짐작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그래도 전북 도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국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 부 처 관계자들과 머리 싸움을 해야 한다는지적이다. 지역 경제의 현실을 보면 안답하다. 소득은 전 국 최저인데 근로빈곤층이 전국 최다이다. 직장이 있는 이들도 실직이 될까 짙게 드리워진데 직 장이 없는 젊은이들은 그 심정이 어떨 것인가.

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내실을 위해서 자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오랜 경기 침체를 타탄 하기엔 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각 지자체들의 부채도 역시나 심각하 다. 살림살이에 쪼들리는 것도 한 두해라이지 계속 반복되면 곤란 하다. 지역 살림의 내실을 위해서 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그것 은 반드시 필요하다.

독자제언

여름철 워터파크 '몰카' 성범죄 비상주의보

어느덧 7월, 따스했던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직장인들을 포함한 남녀노소 모두 휴가계획에 모두 한껏 들떠있는 요즘. 하지만 작년여름, 기분 좋은 휴가를 불안감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동안 뉴스에 종종 보도된 여성상 대로 한 몰래카메라 성범죄.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찜질방, 목욕탕, 수영장, 화장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주로 발생하는 범죄인데, 워터파크 몰래카 메라 사건은 여자사위실내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얼굴까지 공개된 엄청난 범죄행위로 그 피해 자는 숫자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몰래카메라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자의 목구에 총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피해를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호기심이 왕성하고 성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모 방을 하거나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매우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에 경찰은 공공이 이용하는 문화 시설 내 잠복 여경을 배치하는 등 몰 래카메라에 대응한 대대적인 피해에 방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카메라를 이용 하여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 위라는 것을 기억하며 올 여름 몰카 범죄 없는 시원한 여름휴가가 되길 희망한다.

김윤애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숙취운전이란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도 전날의 취기가 아직 몸에 남아 신체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상태로 몸 에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고 잔류가 남아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 으로 음주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단 속수치에 해당하면 벌금형 이상의 형 사처벌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별 체질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성인남자(몸무게 70kg)의 숙취 음주운전 예방 소요시 간은 소주 1병은 6시간~10시간, 소주 1병과 맥주 2병은 12시간~15시간, 소 주 2병은 15시간~19시간이 경과되어 야 숙취가 해소된다.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단속수치에 미 치지는 않더라도 숙취운전은 돌발 상 황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판단력을

저하시키며 졸음을 유발해 교통사고 를 야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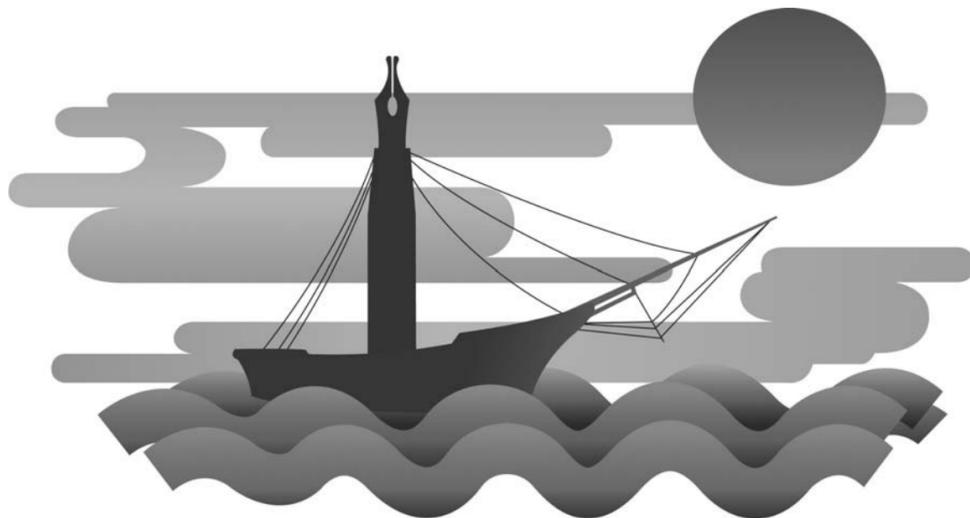
차량은 운전할 때 숙취 상태의 운전 자는 일반적인 운전자보다 평균시속 15km정도를 더 빨리 달리고 차선을 벗어나는 것이 약 4배, 신호위반이 약 2배정도 많다는 결과가 있고 전날 밤 과도한 음주를 한 뒤 숙면을 취했다 고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술이 덜 깬 상태라면 직접 자가용을 이용 하기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경 우 음주운전의 위험 및 단속효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대리운전과 대 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점차 다음날 숙 취운전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 각하여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 음주운전만큼 숙취운전 역시 위험하 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양예라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구독 · 광고문의 ☎ 288-9700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